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할 단체를 선정했다.(사진은 문화전문인력양성 온 프로그램)

시민 참여 · 실습형 교육 진행

남원시, 4월~9월까지... '도시문화아카데미' 운영 단체 3곳 선정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할 단체를 선정하였다. '도시문화아카데미'는 문화도시조성사업 3년차인 올해 처음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꿈'과 '차별화'를 두어 문화예술전문가를 중심으로 좀 더 전문화된 실습을 통하여 일상 생활현장의 장소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실습형 교육이다. 지난 3일부터 모집하여 이 중 심사를 통해 한국무용협회남원지부, 지리산씨협동조합, 남원이트가든스쿨 등 3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이들 단체는 남원축제를 더 쉽고 흥겹게 선보일 남원춤 시즌Ⅱ '춘사춤' 개발 및 보급, 남원에 관한 문화관련 자원을 조사하여 남원 민의 문화지도를 제작하는 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으로 만들어진 남원부와 유희공간 등에 예술적인 조경을 입히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사업은 시민참여과정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결과물 둘 다 놓치지 않으려는 야심찬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도시사업이 함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농기센터, '갈치뿔' 소득작물 발굴 나서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안내 · 농업정보 제공 · 선진지 재배현장 견학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비닐사 등 식량작물 위주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에 비해 작은 경지면적과 경지정리 미흡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비닐사 위주의 농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때문에 읍면지역보다 시내에 더 가깝지만 소득은 더 낮으며 또한 귀농·귀촌 인구가 거의 없어 노령화가 가속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갈치뿔 지역은 평야가 더 작아 농업소득이 특히 낮은 지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소득향상 의지를 함양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을 안내하고 갈치뿔 지역에서 생산가능하고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에 대한 농업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하우스 부추, 머위, 미나리 등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기

위해 21일 갈치뿔 지역 농업인 7명과 함께 일실군 오수면, 남원시 아영면, 경상북도 청도군 선진지 재배현장을 찾아 시설을 견학하고 다수확 재배요령과 판로확보 등 지속적인 소득회를 위한 조언을 구했다. 현장견학을 인솔한 직할 농민상담소장은 "농업인들이 소득 향상의 의지를 갖고 찾는다면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언제든지 가능한 모든 정보와 지원을 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갈라잡이를 자처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경찰서, 4대 사회적 정책홍보 TF회의 개최

남원경찰서는 21일 오전9시 제1회 4대 사회적 정책홍보 TF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4대 사회적 정부정책을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의 정책인지도 향상을 위해 개최했다. TF팀 팀장인 박훈기 남원경찰서장

은 그동안의 4대 사회적 홍보현황 등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전 경찰 기능의 협업을 통해 4대 사회적 정책홍보를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모금회 감사패 받아

'희망 2016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 적극 추진 공로로

남원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한 '희망 2016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21일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으로부터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감사패를 받았다.

남원시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2016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년 대비(2015

년 2억 5,772만 5,000원) 약 10% 증가한 2억 8,378만원을 모금하였고 타 시군구보다 많은 홍보를 하여 나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남원시에서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하여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전통시장서 불량식품 근절 · 불법선거운동 근절 캠페인

순창경찰서는 21일 순창읍 전통시장에서 불량식품근절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불법선거운동'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서 '불량식품 근절' 문구가 새겨진 물티슈를 배부하면서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등 발견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서민 상대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병원, 터미널 등 읍면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불법선거운동 등 점검 및 신고당부 홍보를 실시했다.

더불어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최규은 서장은 "나와 내 가족이 바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불량식품' 신고와 내 지역을 위해서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군, '정보리발축제' 추진 보고회

고창군이 다음달 16일부터 개최되는 '제13회 고창 정보리발축제'를 앞두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추진상황 보고회는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상호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 주무팀장과 무장면·공음면 부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보리발축제 준비상황과 문제점 파악, 각 실과소가 협의하는 철저한 사전대비 방안 등 축제 준비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부군수는 "불철을 대표하는 고창 정보리발축제에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모든 실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고창의 따뜻한 이미지를 알리고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 구림파출소, 영농철 도난·안전사고 예방 홍보

순창경찰서 구림파출소는 농·축산물 절도 및 교통사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방송은 도로 운행이 잦은 이륜자동차, 전동차, 농기계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안전운전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며, 더불어 영농철을 맞이하여 빈집털이 절도 및 농·축산물 도난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 안심하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림면 방화비물 등 12개 마을을 방문하여 방범용 카메라 모니터 및 카메라 각도 등 일제장비도 병행하였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방화저수지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현장소장 및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예방 홍보를 했다. 최규은 서장은 "순창경찰은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군,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

올해 17억 책정 전 농가에

고창군이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농촌인력 극복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육묘용 경량상토를 공급한다. 군은 올해 1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벼 재배 전면적 1만2854ha를 38만 포의 경량 상토를 관세에 거주하는 벼 재배 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특히 올해는 쌀값하락과 농자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보조비율 10%를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한 벼 육묘 시 농가가 선호하는 희망 상토를 농가 신청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건전육묘 생산 기반구축 등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경량상토는 본답 1ha(3000평)당 27포/40l를 준비 60% 지원하며 지역농협과 공급업체 간 협의 후 영농기 이전 농가·마을별로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에서만나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1박2일

